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진도군 가족센터 건립 '시작'

진도읍 동외리 일원 안전지원제 개최...53억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

진도군민들의 교류·소통 공간으로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도군 가족센터'가 건립된다.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서 지난 28일 안전지원제를 개회했으며, 연면적 1,586㎡의 규모로 영유아·아동의 돌봄과 놀이 시설, 가족 교류·소통 공간, 가족 상담·교육 시설 등을 갖춘 지

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진도군 가족센터는 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지방비 38억원 등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층에 키즈카페, 실내 암벽등반장 등을 마련한 다목적 가족 소통 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자녀를 함께 돌보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층과 3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 연면적과 가족형태별 교육·상담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가족센터 건립으로 전세대를 아울러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류·소통 공간이자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소통 등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해 가족 활동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교류하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미래를 위해 가족



교류·상담 등 보편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상반기 가로수 집중방제 실시 보호수·노거수 등 관내 수목 병해충방제에 총력

장흥군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의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 산림병해충 집중방제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소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 2-3월 대덕읍 분도리 일대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했다. 해안가 우량 곰솔림 보호와 아름다운 해안경관 유지를 위해 수문해수욕장과 사촌마을 주변, 한승원문학길의 곰솔림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와 더불어 영양제 주사, 엽

면시비, 유기질비료도 추진했다. 이 후 생활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수 15만 그루와 보호수 144그루, 10개 읍·면 소공원을 대상으로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합해 살포를 해 진딧물과 응애류와 같은 일반병해충으로부터 수목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방제 활동을 전개해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건강한 산림을 지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강대찬벼 대표품종 육성 교육 실시 농업기술센터 신서호 박사 초빙, 올해 500ha 시범 재배

강진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벼를 육성해 쌀 시장을 선점하고자 강대찬벼 안전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강대찬벼 품종 개발자이며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신서호 박사는 "건전종자 확보, 친환경 및 일반재배시 철저한 소독, 과학적 시비 관리, 병해충방제 신속대응 등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그 어느 품종보다 강대찬벼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전남에서 새청무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 육성된 강대찬벼는 신동진과 비교 했을 때 300평당 쌀 수량이 545kg으로 비슷하지만 66% 정도에 머무는 신동진의 도정률에 비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또 밥맛의 지표가 되는 '도요값' 역시 신동진벼는 68.7로 나타났지만 강대찬은 70.4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쓰러짐과 수발아가 거의 없어 강대찬벼가 신동진 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하반기 개관 2014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국비 32억 등 총 140억 투입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올 하반기 개관한다. 해남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억원, 지방비 108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해남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

내놀이터를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로 (구)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및 연면적 4,237.39㎡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본격 착공,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도 운영할 계획으로, 보육과 돌봄, 가족건강 등 복합화 기능을 갖춘 해남군의 가족어울림공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해남군은 민선 7기 보육분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 영유아 발달시기에 따라 필요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육아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어린이의 성장발달 단계별 130종, 508여점 장난감을 보유한 장난감 도서관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대여하게 된다. 2022년 3월 현재 누적 회

원 360여명 이용중으로 지금까지 7,568회에 이르는 대여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센터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 해남군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대대적인 출산·보육정책 발굴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신부 가정에 전문가사관리사를 무료 파견하는 '임신부 가사서비스'와 육아휴직 남성근로자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자녀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과 월30만원의 영아수당(아이돌봄서비스 전액), 만8세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군에서도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0세~2세)와 누리과정(만3~5세) 보육료를 인상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계기입 보험지원 항목을 확대해 원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천관산 문학숲 다음달 착공

장흥군은 오는 4월부터 천관산 문학숲 조성을 시작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관산 문학숲은 지난해 7월 대덕읍 천관산 사랑봉사회의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기존 나무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수목을 식재하

기로 했다. 맥문동, 감국 등 형형색색의 초화류 식재, 휴게공간의 정자 및 스테시석 설치, 노면을 잔디로 마감한 드넓고 쾌적한 잔디광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장평 면민들의 제안으로 장평면 호도장군숲을 조성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